



생보사 사업비 차익 : 현황 및 문제점

李 東 傑 (先任研究委員, 3705-6363)

지난 7년간 국내 생보사는 총 17.2조원의 사업비 차익을 남겼으며, 이중 신계약비 차익이 전체의 60%인 10.1조원임. 특히 대형 3사는 전체 사업비 차익의 79%, 전체 신계약비 차익의 80%를 점해 계약자 부담을 주도하고 있음.

- 국내 생보사는 1998~2004년 동안 총 17.2조원의 사업비 차익을 남겼음.
 - 생보사 사업비 차익은 199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1년 이후 매년 3조원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표 1〉 참조).
 - 특히 이 기간중 대형 3사의 사업비 차익은 총 13.6조원으로서 전체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79%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대형 3사의 사업비 차익을 회사별로 보면 각각 6.3조원, 4.2조원, 3.0조원에 달하고, 전체에서의 비중은 각각 36.7%, 24.5%, 17.8%에 이름.
 - 이 기간중 생보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6조원에 불과하여, 지난 수년간 생보사들이

〈표 1〉 사업비 차익 추이

(단위 : 십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예정 사업비	7,089	7,451	8,754	10,805	12,354	12,244	13,626	72,322
실제 사업비	6,534	6,231	7,120	7,822	8,514	8,614	10,318	55,153
사업비 차익	554	1,219	1,635	2,983	3,840	3,630	3,308	17,169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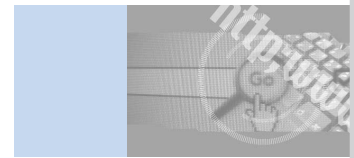
〈표 2〉 사업비 차익 구성

(단위 : 십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신계약비 차익	264 (47.6)	706 (57.9)	887 (54.2)	1,864 (62.5)	2,522 (65.7)	1,927 (53.1)	1,976 (59.7)	10,146 (59.1)
유지비 차익	45 (8.0)	289 (23.7)	479 (29.3)	863 (28.9)	919 (23.9)	1,135 (31.3)	679 (20.5)	4,409 (25.7)
수금비 차익	246 (44.3)	225 (18.4)	269 (16.4)	257 (8.6)	398 (10.4)	568 (15.6)	653 (19.7)	2,615 (15.2)
사업비 차익 합계	554	1,219	1,635	2,983	3,840	3,630	3,308	17,169

주 : ()는 구성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대부분 사업비 차익으로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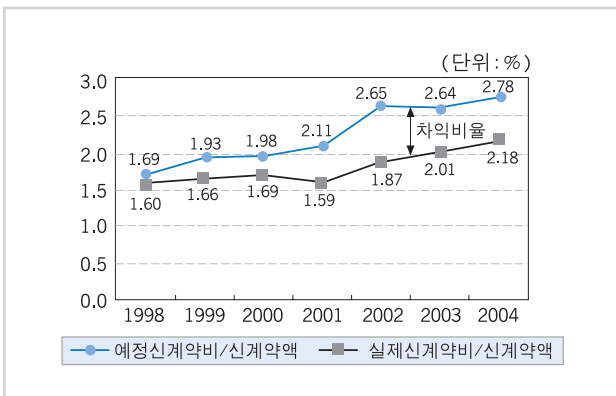
- 사업비 차익의 내용을 구성항목별로 보면 신계약비 차익이 10.1조원, 유지비 차익이 4.4조원, 수금비 차익이 2.6조원이며, 전체 사업비 차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1%, 25.7%, 15.2%임(〈표 2〉 참조).

• 즉, 사업비 차익은 주로 신계약비 차익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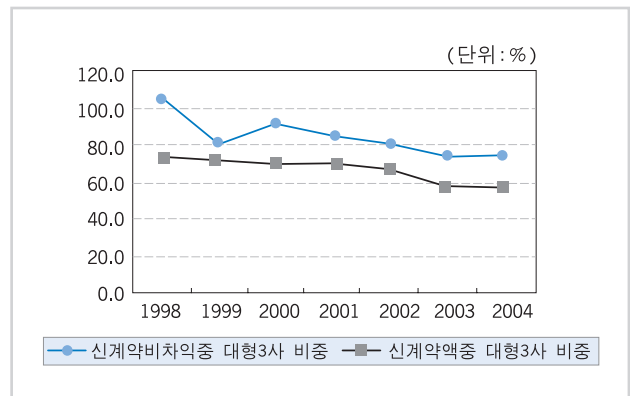
- 신계약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생보사들이 실제 비용증가율을 훨씬 초과하는 신계약비를 예정 신계약비 명목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킨 데 기인함.

• 〈그림 1〉을 보면 2001년부터 예정신계약비/신계약액 비율이 실제신계약비/신계약액 비율보다 빨리 증가하여 신계약액 대비 신계약비 차익비율이 커졌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신계약비/신계약액 비율 추이



〈그림 2〉 대형3사의 신계약비 차익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 특히 이 기간중 대형 3사의 누적 신계약비 차익은 8.1조원으로 생보사 전체 신계약비 차익 10.1조원의 80%에 달할 정도로 과다한 수준임.

• 이에 비해 대형 3사의 누적 신계약규모는 전체의 66%에 불과하며, 이를 볼 때 대형 3사가 신계약 1원당 남기는 신계약비 차익이 기타 중소형 생보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필자의 추산에 의하면 신계약 1원당 신계약비 차익은 대형 3사가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의 2배를 능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이와 같이 국내 생보사들은 지난 1998~2004년 동안 보험계약자에게 과다한 사업비(그중에서도 특히 신계약비)를 부담시켜 왔으며, 특히 대형 3사가 이를 주도하였음.

•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를 시정해야 함(필자 주: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시정방안은 다음에 논함).